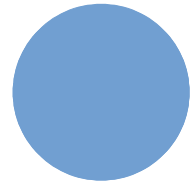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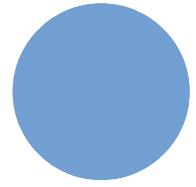

2014년1월2일 발행(제3호)



SIG 소셜이노베이션 보고서

사회혁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담론

양세진박사(소셜이노베이션그룹 대표)

-
- 발행인 : 양세진
 - 발행일 : 2014년1월1일(목)
 - 공동연구 : 천희, 신혜정, 최홍섭, 조면철, 양세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공익적인 목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용,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혁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담론

2014년1월2일 소셜이노베이션그룹

'사회혁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학술적인 논문에서, 민간 영역의 다양한 조직들에서, 그리고 사회문제를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모습들에서 '사회혁신'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관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바로 사회혁신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사회혁신의 주도적인 리더로서의 삶이 토대가 되어 시장이 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은 단순한 개념을 넘어 시대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혁신은 사전적으로 보면, "사회혁신 = 사회+혁신"입니다.

그러나 총체는 부분의 합인 전체보다 크다고, '사회혁신'은 부분으로서 '사회'와 '혁신'의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사회혁신'은 명제적 개념이 아니라 성운적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숙고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한다고 해도, 그 의미를 명석, 판명하게 한정해서 정의(definition)내리기는 힘들며, 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narrative)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우주에 분명 개별적인 별이 아니라 별의 무리로서 성운이 존재하지만, 성운에 가까이 다가가보면, 어디까지가 성운의 안이고, 어디서부터가 성운의 밖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사회혁신을 말하지만, 도대체 사회혁신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이며, 무엇이 진정한 사회혁신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혁신'의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정의내리거나 한정해서 설명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하는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하며, 다르게 생각하는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라는 대화편에서 '참된 앎'이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각 개인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앎을 얻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에 관심을 가진 관계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정당화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의 본질에 대해서 참된 앎을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관계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화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목표와 기대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분적인 접근과 적분적인 접근은 대단히 유

용한 방법론이라 생각합니다. 미분과 적분은 수학의 한 분과가 아니라 바로 참된 앎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미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의 결합어이기 때문에, 우선 '사회'와 '혁신' 각각의 의미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사회'수업도 아니고, 아니 웬 '사회'에 대한 개념이해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치', '경제', '사회'로 분류되는 '사회'의 의미는 '사회'의 온전하고 풍성한 의미가 대단히 축소되고 협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본래적인 의미가 왜곡되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회'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한 부분이나 분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총체로서의 '사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개념이 바로 '폴리스'입니다.

사회란?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테이아]에서 인간 삶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참여'로서의 '폴리스적인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운 폴리티콘(zoon politikon)'. '인간은 폴리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인간이 폴리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본래적인 의미는 인간들이 가족이나 부족의 수준을 넘어서 좀 더 큰 규모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군집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폴리스란 지금은 분과로 구분되어서 이해되는 소위 '정치, 경제, 사회, 법과 제도, 문화, 교육, 복지, 환경, 외교, 국방'의 총체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총체로서의 폴리스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 공동의 책무를 인식하면서 참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폴리스에 있어서 온전한 시민적 삶이란, 바로 폴리스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 '정치, 경제, 법과 제도, 문화, 교육, 복지, 환경, 외교, 국방'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와 무관한 것으로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삶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은 폴리스의 시민적 삶에서는 철저히 부정되는 가치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폴리스에서의 이러한 인간의 존재방식을 일컬어 '공공성의 삶(public life)'으로 표현했으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수행하는 노동하는 삶을 넘어 취미와 취향과 여가를 위해 작업하고 제작하는 삶을 넘어서, 폴리스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 참여하는 실천적인 삶이 인간의 조건임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나 아렌트는 지금은 당연하게 존중받는 삶으로 이해되는 '사적인 삶(private life)'이란 다른 아닌 '공적인 삶'이 결여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도 사적인 삶이 있다고 존중해달라는 것은 나는 폴리스에서의 시민적 삶에는 관심이 없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삶의 가치로 바라볼 때 이러한 한나 아렌트의 설명을 받아들이기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본래적인 의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삶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으로서 그리스의 폴리스적인 삶은 로마에 와서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로 번역되어졌습니다. 폴리스적인 삶으로서 인간 삶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을 res publica의 삶으로 가장 잘 소개한 사람은 바로 키케로였습니다. 키케로는 [공화국(res publica)]에서 로마의 통치체제를 군주와 소수 귀족 그리고 다수의 평민들에 의해 통치되는 res publica로 소개하였으며, 공화국으로 번역되는 res publica란 바로 그리스 폴리스의 로마식 번역어라 할 수 있습니다.

res publica에서 온전한 시민적 삶이란 바로 공공서의 가치를 지향하며, 공동체 전체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 참여하되,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특히 중요한 인간 삶의 본래적인 존재방식은 '비지배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케로는 아무리 착한 주인이라도 주인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자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덕한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착하고 덕이 많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 노예의 삶이 간섭받고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으며, res publica란 누구도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외부의 자의적인 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가능한 총체로서의 사회를 의미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폴리스의 시민성의 핵심을 참여로 본다면, 로마 res publica의 시민성의 핵심은 자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에서도 로마에서도 '사회'는 전체로서의 사회였지, 정치, 경제, 사회의 분과로서의 사회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현대와 와서 총체로서의 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폴리스'와 로마의 'res publica'의 의미는 퇴색되고, 군주가 권력을 소유하고, 중앙집권적인 정치권력이 지배하면서 분과로서의 협의적이고 왜곡적인 의미의 '사회' 개념으로 이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로 이해하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는 중세 이후에 탄생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폴리스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물로서 인간은, res publica를 이루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인간은 이제 '사회적 동물'로 축소되고 전체로서의 사회로부터 배제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로 번역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운 폴리티콘(zoon politikon)'은 다시 그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가 복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셜이노베이션그룹이 이해하는 '사회혁신'의 '사회'의 의미는 바로 전체로서의 사회, 총체로서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의의 의미로서 사회 안에서의 질서와 책임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로서의 사회문제인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며, 시장의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란?

그럼 우리는 '혁신'의 본래적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1984년 6월25일 미셸 푸코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진행된 장례식장에서 질 들뢰즈는 미셸 푸코의 철학적 삶을 스스로 대변하는 목소리를 낭독하였습니다.

'내(푸코) 작업의 동기는 아주 간단했다. 그토록 끈질기게 작업에 몰두했던 나의 수고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만을 보장해 주는 호기심이 아니었다. 우리 인생에는 '성찰과 관찰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며(팡세 오트르멍 penser autrement, think different),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다'라는 의문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철학이란, 철학적 행동이란 다르게 생각하면서 기존의 사유에 대한 비판 작업이라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내려는 노력, 바로 그것이다.' 들뢰즈가 대변한 푸코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혁신 Innovation 의 철학적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으로 사용하는 'Innovation'은 'In'이라는 단어와 'nova'라는 단어의 결합어입니다. '노바 nova'는 헬라어 카이노스(kainos)의 라틴어 번역어입니다. 카이노스와 노바 모두 어떤 대상을 보는 시선과 시각, 생각을 새롭게 하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단어로는 그냥 'new' 혹은 'novel' 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바 nova'란 대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행위보다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대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 생각, 가치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책도 어떤 날은 다른 의미로 이해되듯이,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다른 의미로 보이듯이 그렇게 동일한 대상으로 늘 새롭게, 다르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인 프톨레마이오스(85-165)는 천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면서 '천동설(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천동설은 중세 천년을 지배하는 과학적 담론이었습니다. 그러나 1543년 코페르니쿠스(1473-1543)가 지동설(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을 주장하면서 천동설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동설을 천체의 과학적 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담은 책의 제목인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on revolutions)'가 바로 혁신의 '노바 nova'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주로 날아가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단지, 우리가 기존에 보고 있던 시선과 생각을 '회전시켜 revolution' 보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간단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즉,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된 마치 혁명적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새롭게 회전시킴으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물리학계에서는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회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구의 회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의 회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최초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의 회전, 시선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우리에게 '노바 nova'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잘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접두어인 'in' 은 잘 알듯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보는 방식을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즉 'out-nova'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부터 내면적으로 접근해야 진정한 새로움을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i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의미 있는 거라고, 가치 있는 거라고 외부에서 말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웃음을 보이며 공감을 표하지만, 사실은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것처럼, 감정노동의 맥락에서 우리는 웃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 없는 미소를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in'의 일차적인 의미는 새롭게 보고 생각하는 'nova'를 자기 안에서부터 내면적인 확신을 통해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in과 nova를 결합한 혁신(In-novation)의 일차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보는 시선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외부의 강제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스스로 그러하다는 공감과 내면적 확신에 의해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창의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점에서 최초의 혁신의 철학자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양철학사는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와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을 탐구했던 탈레스는 최초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 영혼의 탁월함을 캐물었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탈레스는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한 것은 맞았지만, 그것을 외부에서부터 찾았습니다. 우주와 자연세계로부터 사물의 본질을 탐구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물의 본질,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인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의 탁월함을 캐물는 것을 통해 본질을 탐구한 최초의 혁신 철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철학사를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을 혁신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시도를 외부로부터 시도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는 시도를 인간 자신 안으로부터 'in'하여 시도하였기 때문에 온전한 의미에서 혁신의 철학자가 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그노티 세아우톤)', '캐물음(exetasis)이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물음은 바로 인간 자신의 영혼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인 삶을 확인시켜준 혁신의 경구였으며, 혁신적인 삶이란 다름 아닌 외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본질을 탐구하고, 영혼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의 사장으로 복귀한 뒤에 세상에 내놓은 광고카피이면서 회사의 슬로건은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혁명적인 결과를 창출한 사람들은 모두 기존과는 다르게 생각하였던 사람들의 몫이었음을 짧은 CF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국내외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think different'를 굉장히 중요한 혁신의 경구로 생각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think different'는 바로 'nova'의 의미를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각인시켜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ink different'는 서두에서 인용한 것처럼 푸코와 들뢰즈 등 현대프랑스철학의 중요한 시대정신이며, 시대의 지향적 가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탁월함은 철학적 담론으로서 'think different'를 자신의 경영철학의 핵심가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혁신의 본래적 의미인 'nova' 를 재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의 'in'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in'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nova를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in의 첫 번째 의미와 함께 그러한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분위기가 잡혀 있고, 환경이 잘 세팅되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내면화된 능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 내면적인 역량으로 배태되어 있으며,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혁신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보고, 새롭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자기 안에 구조화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구조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역량으로 내면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은 구조화된 힘이며, 구조화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에 구조화된 힘을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paradigm)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습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 혁명이란, 기존 패러다임이 자연의 어떤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탐사에서 이전에는 그 방법을 주도했으나 이제 더 이상 적절하게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의식이 과학자 사회의 좁은 분야에 국한되어 점차로 증대되면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학혁명은 세계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과학자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과학에서의 혁명적인 변화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것이 구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혁신이란 nova가 자기 '안에 in' 하여 내면화된 능력으로 구조화되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 paradigm'로 체계화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틀로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플라톤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폴리테이아]에서 플라톤은 우리가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본질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틀이 바로 '파라데이그마 paradeigma'이며, 이것이 패러다임paradigm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대상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일회적으로만 발휘되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면화된 능력으로 구조화되어 어떠한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구조화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적인 조직이란 뭔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늘 새롭게 만들어 내는 조직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생각,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내면화된 능력으로 구비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혁신의 능력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화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단순히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와우' 할 만한 의미 있는 열매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을 아주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차원으로 적용해보면, 초등학생의 삶에서도 혁신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던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능력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킴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초등학생의 삶에서도 혁신은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운동선수의 입장에서든 지금까지 하던 훈련의 방식을 새롭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그러한 방식을 자신 안에 내면화된 능력으로 만들어 간다면 기존과는 다른 더 탁월한 수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혁신적인 삶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셜이노베이션그룹이 이해하는 '사회혁신'의 '혁신'의 의미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삶이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이 내면의 능력으로 배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미 벌써 혁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혁신적인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적인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본질이란?

사회혁신=사회+혁신.

형식적으로 보면, 사회혁신은 사회와 혁신이라는 부분의 결합으로서 전체이지만, 그러나, 총체는 부분의 합인 전체보다 크다고, '사회혁신'은 부분으로서 '사회'와 '혁신'의 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회'와 '혁신'의 본래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명하였지만, '사회'+'혁신'으로 '사회혁신'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애매함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회혁신을 단순히 기업혁신, 정부혁신에 이은 제3세대 혁신으로서 이해해서는 '사회혁신'의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핸드폰'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핸드폰이란 메모리칩, 배터리, 레티나 화면, 800만 화소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식으로 구조적인 접근으로는 도저히 핸드폰의 본래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따라서 사회혁신이란 사회와 혁신의 부분이 결합된 전체로서의 결합어가 아니라, 삶의 총체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의 의미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왜곡된 의미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과 구조이며 환경으로서 전체로서의 사회를 의미 하는 것이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기에, 기업혁신과 정부 혁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혁신이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업혁신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혁신의 대상이라면, 정부혁신은 정부라는 조직이 혁신의 대상이라면, 사회혁신은 정치, 경제, 사회로 구분되는 협의의 사회가 혁신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사회의 총체적인 구조와 가치를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업혁신이나 정부혁신에서는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환경이나 생태적인 가치나 성평등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혁신에서는 이 모든 가치들이 다 연관되고 얽혀져 있으며, 그런 총체적인 접근으로서만 우리는 사회혁신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혁신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접근을 통해 하드웨어와 프로세스에 변화를 줌으로써 기업 조직의 예산이 절감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성이 증가됨으로, 사용자 경험을 높이고, 고객의 가치창조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느냐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정부혁신에서는 정부 조직의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조직의 일부분을 시장에 내어 맡기는 민영화를 선택하거나, 행정조직 자체의 구조조정과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임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회혁신에서는 전체로서의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이 존중되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받고, 인간 영혼의 생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표 1> 기업혁신-정부혁신-사회혁신의 같음과 다름

	기업혁신	정부혁신	사회혁신
패러다임	다르게 생각하기 In-nova	다르게 생각하기 In-nova	다르게 생각하기 In-nova
대 상	기업조직	정부조직	총체로서의 사회 (정치, 경제,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가 아닌)
프로세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예산 절감, 파급효과 향상	소통, 공감, 호혜와 협동의 내실화
열매 지향성	수익 극대화	정부, 의회, 언론, 국민 등 이해관계자 만족도 향상	인간의 존엄성 인정 영혼의 생기 활성화

<표 1>에서 보듯 기업혁신과 정부혁신, 사회혁신은 모두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한 역량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과 문화 속에 내재화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프로세스에 있어서 기업혁신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가치이며, 정부혁신은 예산 절감과 정책 효과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반면 사회혁신은 재정과 파급성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혁신의 과정 속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을 받을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얼마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호의존적인 호혜와 협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종적인 열매에 대한 지향성에 있어서도 기업혁신은 수익 극대화가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선이라면, 정부혁신에서는 권력관계의 상층부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설령 예산을 낭비하고, 파급효과가 없더라도 행정 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성공한 정부혁신이지만,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고 파급효과가 높다고 할지라도 행정 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실패한 정부혁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혁신에 있어서 최종적인 열매에 대한 지향적 가치는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의 기회가 창조된 결과 속에서 관계되는 사람들의 존엄성이 존중받았는지, 그리고 좀비처럼 대우받거나 일하지 않고 영혼의 주체로서 영혼의 생기가 살아 있는지가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회혁신에서 중요한 가치는 영혼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인정받고 존중받느냐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의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소통과 공감, 상호의존적인 호혜와 협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핵심적인 요소가 아님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과 적은 비용이 중요한 가치이지

만,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는 것이 결코 낭비이거나 비효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혁신의 과정 속에서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회혁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일하던 사람들이 영혼을 담아서 일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혁신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기업혁신이나 정부혁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혁신의 대상이 사회영역이고, 사회문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심지어는 임팩트 있게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업혁신의 아류, 정부혁신의 아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가수가 미국의 팝가수 흥내를 내어서는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고, 심지어는 감동을 준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와 한, 흥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고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한국가수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진정한 한국인 가수로서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 문화를 교류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회혁신의 본질이란 '소통과 신뢰, 호혜와 협동'의 방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배태되어 있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 반영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식의 파급효과의 크기만을 따지는 방식으로 사회혁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망각하고 모방하고 따라하고 심지어는 표절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혁신의 본질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영혼의 생기가 살아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호혜와 협동의 방식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함으로 보다 큰 규모의 임팩트를 창출하는 접근방법 혹은 일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소셜이노베이션그룹이 이해하는 '사회혁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혁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혁신'에 대한 명제적 정의(definition)가 아니라 성운적(constellation)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혁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현장의 실천으로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르게 이야기되고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SIG.